

미·중의 군사전략과 한반도 안보

손 도 심*

목 차

- I. 서언
- II. 국가전략과 군사전략의 개념과 구조
- III. 미·중의 군사전략
- IV. 미·중 관계
- V. 미·중의 군사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 VI. 결언

孫子曰：兵者，國之大事，死生之地，存亡之道，不可不察也。

(병자, 국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불찰야)

(전쟁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다. 국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니 신중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 孫子兵法 第 1 篇 始 計

孫子曰：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

(부전이, 굴인지병 선지선자야)

(이는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 孫子兵法 第 3 篇 謀 攻

* 고려대 대학원졸,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과정(국제정치), 대전대 군사연구원 연구위원

孫子曰：相守數年，以爭一日之勝
(상수수년, 이쟁 일일지승)

(적과 서로 대치하기를 수 년 동안 하면서, 결국 하루의 승리를 다투게 된다)

- 孫子兵法 第 13 篇 用 間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자는 그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 투키디데스

I . 서언

과거를 기억하지 못 하는 자 과거를 되풀이 한다

- 산타야나

북한의 핵문제가 93~94년도이어 2003년도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¹⁾. 2006년에는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대내외에 발표했다. 이는 한반도 주변 정세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정권의 ‘체제보장’과 ‘경제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한반도에서 냉전 (Cold War)시기에는 미·소가, 1989년 탈냉전 (Post Cold War)시기 이후에는 미·중 세력과 일본, 러시아의 세력이 교차하고 있으며, 특히 9.11 이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테러세력과 일부 중동 및 불량국가들의 테러세력과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의 중국은 경제발전에 힘입어 경제대국 및 군사강국으로 급부상

1) 필자는 93년의 핵 위기를 ‘1차 핵 위기’, 2003년의 핵 위기를 ‘2차 핵 위기’라고 불린 것은 독자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 편의상 불린 것이다

(rising)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 기초한 중국은 군 현대화 계획과 군사혁신 (RMA)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 구소련을 상대로 군비경쟁 (Arms racing)에서 레이건 정부는 'SDI'(일명 별들의 전쟁)라는 엄청난 Project를 시행, 경제가 어려운 소련을 상대로 군비경쟁(Arms racing)에서 낙오시켰고, 그 결과 1991년에 구소련은 해체되었다. 구 소련 해체 후 미국은 조지 W부시 정부 등장 후 MD (Missile Defensive 미사일 방어) 체제를 도입, 불량국가(rogue states)들의 미사일, 대량 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미사일 안보를 제공하는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MD를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획대로 MD체제를 가동시키고 있다. 최근의 중국은 이에 대해 러시아, 북한과 연대해 신 삼각동맹을 복원하고 협력 체제를 강구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미국은 2006년 2월에 발표한 'QDR 2006'에서 ① 테러리스트 네트워크 격퇴. ② 미 본토 종심방어. ③ 전략적 기로에 선 국가들의 선택방안조성. ④ 적대국가와 비국가행위자들의 대량살상무기 획득 또는 사용방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밝히고 있다.²⁾

미국과 중국은 1972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크고 작은 무력충돌을 포함한 상호경쟁과 협력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측에서는 항상 문제를 미국 측에서 제기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2003년 핵위기 (NPT탈퇴) 이후 2+4(미·일·중·러)를 중심으로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지속해 오고 있다. 북한에 6자회담 테이블에 앉기 전까지 중국의 역할은 분명해

2) 미 국방부는 QDR 2006에서 위의 4가지 우선목표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비정규적이고 파괴적인 도전을 처리하기 위한 능력과 전력을 증강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Department of Defense February 6, 2006

보였다. 중국의 속내는 자국의 경제발전이 6자회담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기저에 깔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90년대 이후 와 9.11이후의 미국과 중국의 군사전략을 살펴보고 미·중의 군사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바른 이해를 위해 90년대 이전의 미국과 중국 간에 있었던 양국간의 역사적 사례를 조명해 보는 것이 이 논문을 이해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 올려보았음을 첨언합니다

II. 국가전략과 군사전략의 개념과 구조

1.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1) 국가전략의 개념

국가전략이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평시를 막론하고 군사력을 위시한 정치·경제·심리적 역량을 발전(developing)시키며, 사용(using)하는 술(art)과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풀어 설명하면 국가전략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력을 운용하기 위한 장기계획이다. 광의의 국가전략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적용되어 질 수 있다. 국가전략은 전체국력의 요소, 즉, 정치·경제·환경·심리 및 군사력을 포함하여 운용하며 지리적인 위치나 한나라 국민의 정신적 자세(태도)와 같은 기타의 국가자원을 증진 개발 할 것이다.

앙드레 보프레(Andre Beaufre)는 「전략입문」에서 “전략이란 어떤 목적 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사고방식이며, 이와 관

련된 각종 현상과 자원을 계통적으로 배분해서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가장 효과적인 행동방책을 선택하는 행위지향적인 과학과 기술”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우리시대의 필요성에 적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략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힘(force)을 활용하는 술(art)”이라고 정의하고, 이 힘에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적, 외교적,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능력을 포함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위의 앙드레 보프레가 제시하고 있는 전략의 개념은 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힘의 적용술이고 ② 사고의 방법이며 ③ 힘을 사용하는 두 적대 의지간의 변증법적인 사고방법의 술(art)이라고 표현하였다. 즉 전략은 전체로서의 전쟁 수행을 다루는데, 그것은 가용한 모든 전쟁수단들을 설정된 목표에 집중시키는 방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략이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환경에 관한 통합된 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 국가전략을 의미한다. 국가전략은 국가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한 국가적 책략으로서 국가의 존립목적에 따른 국가이익의 우선순위와 국가목표를 정함에 있어서 절대불가결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안보요소별 제 정책을 통합 조정하여 전·평시를 포함한 국가안전보장정책을 발전시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력을 조성, 배분, 운용하는 과학과 기술이다

2) 국가전략의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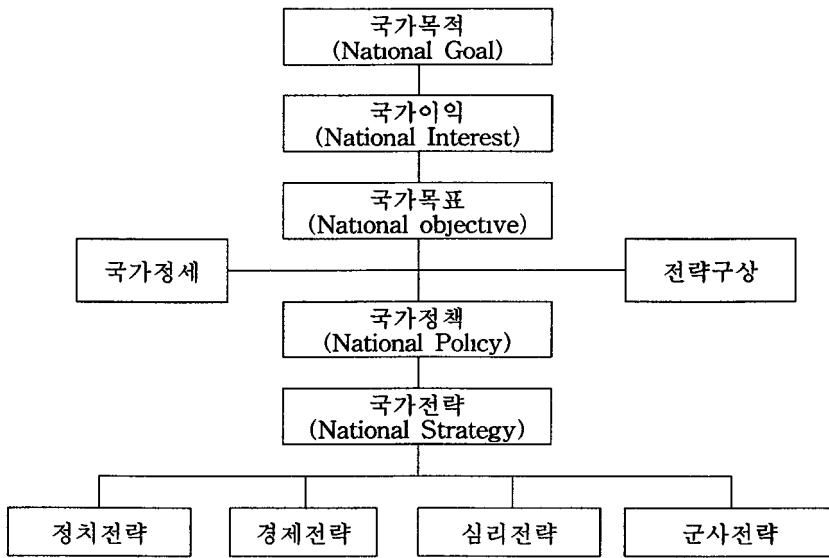
국가전략체계도란 한나라의 국가정책과 국가전략이 수리되는 일련의 과정(Process)을 System화 한 것이다. 국가전략의 체계도를 통해서 군사전략의 위치를 Scan 해보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일로 여겨 질 수 있다. 국가전략과 정책 그리고 군사전략과는 상호간 밀

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전략체계는 군사정책과 그리고 군사전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일 것이다.

전략은 인간사회에서 투쟁의지를 갖는 양 집단간의 무력충돌 현상인 전쟁이라는 피의게임에서 승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피'의 제 원리를 다룬다. 인류는 수많은 전쟁사에 나타난 전략체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고대전쟁에서부터 나폴레옹 등장이전까지는 전술의 시대였다. 이 시대에는 상호 예견된 전장에서 병사들이 장비하고 있는 무기의 효과를 최대로 발휘하기 위한 전투대형과 전투대형간의 충돌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술을 발전시켰으나 나폴레옹이 등장한 이후의 근대전쟁에서는 사전 주도면밀한 기동계획을 작성하여 예기치 않는 시간과 장소에 공격을 가함으로써 적을 혼란에 빠뜨려서 승리하는 전법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후의 전쟁은 군대와 군대의 충돌양상에서 국력 대 국력의 투쟁인 국가 총력전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다. 2차 세계대전이후에는 핵무기의 등장으로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직접적인 무력사용보다는 외교심리차원³⁾에서 국가목표를 달성하려는 억제전략(deterrence strategy)으로 또 한번의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 그러나 21세기 미국의 군사전략을 보면 '선제예방 전략'(pre-emptive strategy)이 대두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전쟁수행 방법도 그 시대에 맞는 양상으로 계속 변화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9.11이후에는 자국의 실리를 앞세우는 외교현상이 보편화 되는 추세에 있다 9.11이후 중국의 외교 전략은 반테러, 반핵산 연대 구축에 서방진영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경제 전략에 적극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세계는 테러대 반테러라는 세력 집단간 줄서기(line-up)가 이미 시작되었다 테러 집단에는 경제봉쇄, 원조중단,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쟁의 위기를 불러 올수 있음을 감지해야한다



출처 이영민, 「군사전략」(서울· 송산출판사, 1991) P 15 국가목표아래 국가당면목표로서 국가정책과 국가전략으로 분류하였으며, 정치전략을 정치외교로, 심리전략을 사회심리로 표기하였으며 국가전략 아래 정치, 경제, 심리, 군사 전략이 있으며, 각 전략의 상위개념으로 정책(policy)이 위치하고 있다 즉, 정치외교(정책 전략), 경제(정책·전략), 사회심리(정책·전략), 군사(정책·전략)으로 표기하였으나, 일부내용은 필자가 수정보완 하였음

〈그림 1〉 국가전략의 체계도

위에서 본 전략이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책략을 의미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라크전쟁에서 보았듯이 현대전은 정치전, 외교전, 심리전을 통합한 전쟁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군사의 군령에 관한 업무체계를 용병술(用兵術) 체계라 명령하고 군사전략, 작전술, 전술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용병술이란 ‘실제 전장에서 가용전투력을 전투에서 운용하는 과학과 실병

지휘기술'로서 시행상의 과학임과 동시에 상대보다 창의적인 술(art)의 영역이 요구된다.

전략체계를 손자는 정 전략과 군사전략, 전술로 구분하였다.⁴⁾ 손자는 그의 병서 제3편 '모공'(謀功)에서 孫子曰：“凡用兵之法(법용 병지법)은 全國(전국)은 爲上(위상)이요, 破國(파국)은 次之(차지)이며; 全軍(전군)은 爲上(위상)이요, 破軍(파군)은 次之(차지)이며; 全旅(전여)는 爲上(위상)이요, 破旅(파여)는 次之(차지)이며, 全卒(전졸)은 爲上(위상)이요, 破卒(파졸)은 次之(차지)이며; 全伍(전오)는 爲上(위상)이요, 破伍(파오)는 次之(차지)이다, 是故(시고)로 百戰百勝(백전백승)이 非善之善者也(비선지선자야)요; 不戰而 屈人之兵(부전이 굽인지병)이 善之善者也(선지선자야)라”⁵⁾

2. 군사전략(Military Strategy)

1) 군사전략이란

일반적 의미의 군사전략은 국가전략의 일부로서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적 제 수단을 분배하고 운용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군사전략⁶⁾은 국가안보 수준에서 군사적 제 수단을 조정, 통제, 배비하며 군사력 운용을 지도한다. 따라서 군사전략 개념은 국가방위의 근본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

4) 하대덕, 『군사전략학 전략학체계와 이론』(서울 을지서적), 1998, P 107

5) 손자 말하되, 무릇 용병의 법은 나라를 온전히 하는 것이 상이고, 나라를 깨뜨리는 것이 다음이다, 군은 온전히 하는 것이 상이고, 군을 깨뜨리는 것이 다음이다, 여를 온전히 하는 것이 상이고, 여를 깨뜨리는 것이 다음이다, 졸을 온전히 하는 것이 상이고, 졸을 깨뜨리는 것이 다음이다, 오를 온전히 하는 것이 상이고, 오를 깨뜨리는 것이 다음이다, 이런고로 백번 싸워 백번 승리하는 것이 결코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적을 굽복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6) 군사전략과 군사정책, 작전술, 전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영민, 『군사전략』 (서울 송산출판사)을 참고

한 건설된 군사력의 배비는 국가안위의 척도가 된다.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의 군사전략에 관한 정의는 “전략은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투를 운용하는 기술이다”라고 했으며, 알프레드 마한⁷⁾은 “군사전략은 전·평시를 불문하고 군대를 창설·유지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군대를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한편 간접 접근전략의 주창자인 프랑스의 리엘하트⁸⁾는 “군사전략은 정책의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적 제 수단을 분배하고 적용하는 술(術)”로 파악했으며 “군(軍)은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한다고 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략의 뜻은 각 시대, 장소 및 사람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내렸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군사전략에 대한 정의는 보다 더 명백하게 내려졌다. 군사전략에 대한 전략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 1) 전략은 전투의 준비에 관한 병술이다 -다리우, 와구넬-
- 2) 전략은 작전구상의 술이며, 전술은 실시의 술이다

7) 미국계독 마한(A T Mahan, 1840~1914)은 바다의 클라우제비츠로 불린다. 마한은 해양전략에 대해 체계적으로 생각했으며 대륙요소와의 차별성, 즉 해양요소의 특수성에서 출발한다. 마한은 해양세력을 되려면 전략지점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한데, “우선적으로 해양세력을 구성하는 것은 해군이다” 그리고 “해상에서의 거점, 중요지점의 통제는 평화시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혼련을 필요로 한다” 영국은 18세기초에서 2차 세계대전까지 바다에 축을 둔 지정학적 관점을 추구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특히 빌트해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모든 해양의 통행거점(지브롤터, 희망봉, 수에르아멘, 호르무즈, 싱가포르)을 통제해 전쟁을 할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영국은 해양전략 거점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한은 영국의 이러한 해양지배는 미국의 모델이 되었다

출처 필립모르 드파르쥐저, 이대희·최연구 역, 지정학입문 공간과 권력의 정치학 (서울 새물결, 1997), pp 50~52

8) 리엘하트(1895~1970)는 파리에서 태어나 1914년 1차 세계대전에 참가(솜므전투) 1924년 대위로 전역 대학강사를 하였으며 1937~1939년 영국 육군장관 호어 벨리사의 군사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그의 간접 접근 전략의 형성은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 징기스칸에 대한 연구, 30개 전쟁 280개 전역을 분석, 과거 전쟁에 대한 깊은 연구로부터 전략사상을 도출하고 역사상 가장 결정적 승리는 간접적 접근에 의한 승리로 생취하였다

-로오란-

- 3) 전략은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투운용에 관한 기술이며, 전술은 전투에서의 전투력 사용에 관한 기술이다.

-클라우제비츠-

- 4) 전략은 군 지휘관이 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여된 권한 내에서 제 수단을 적용하는 기술이다.

-대 몰트케-

- 5) 전략은 평·전시를 불문하고 군대를 창설유지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군대를 사용하는 술이다.

-알프레드 마한-

- 6) 전략은 정책의 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적 제수단을 분배적용 하는 기술이며, 전술은 직접 전투행위를 위하여 병력을 배치하고 지휘하는 술이다

-리델하트-

- 7) 전략은 전쟁전체의 준비와 수행을 연구하는 것이다

-소련백파사전-

- 8) 전략은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교 및 병력의 양자를 창설하고 준비하여 이것을 사용하는 술이다.

-마이야스-

- 9) 군사전략은 국가전략의 일부분이며, 군사력의 행사 또는 시위로서 군사정책상의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군사력을 운용하는 기술과 과학이다

-미 육군

군사전략(Military Strategy)

- 힘의 적용 또는 힘의 위협에 의하여 국가 정책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사용하는 기술 및 과학. (미국)
- 무력 또는 무력 위협을 적용하여 국가 정책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 국가의 군사력을 사용하는 기술 및 과학이다. (미국)
- 전쟁의 발생을 억제 저지하기 위해 또 일단 전쟁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군사력과 기타 여러 가지 역량을 준비, 계획, 운용하는 방책을 말한다. (일본)
- 전략은 군사학술의 한 구성부분이며 최고의 영역으로, 전략은 국가와 무장역량이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과 전략성 전역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이론과 실제이다. (소련 군사백과사전)

출처 손도심, 「카멜레온과 한반도 종단열차 북한의 전략과 선택」(가제 목) , P 16

1997년 중국 군사과학출판사에서 출판한 ‘중국 군사백과전서’와 중국인민해방군 군어(軍語)에서는 전략을 “전쟁전체를 계획하고 지도하는 방략(方略)”이라고 칭하고 있다.⁹⁾

이러한 군사전략은 전통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결전전략(섬멸전략)이다. 이는 적 부대를 섬멸하는 전략으로 써 고대 및 근대를 통해 그리고 제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둘째는 지구전략(소모전략)을 들 수 있다. 독일군의 전격 전도 광의의 지구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줄리안 라이더

9) 1978년 ‘중국상무인서관’에서 출간한 현대중국어 사전에는 전략은 “전쟁 전체를 지도하는 계획과 책략”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박종원·김종운, 「중국전략론」 (서울 팔복원, 2001), P 29.

(Julian Lider) 그의 논문 「전략의 현대적 개념」에서 전략의 형태를 분류하였다. 전쟁의 형태, 억제할 수 있는 군사무기의 종류, 군사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전쟁환경(War circumstances), 전쟁과 평화전략(War and Peace strategy)에 따라 구분하였다.

다음은 군사전략 목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군사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적의 저항력을 박탈하는데 있으며, 적 저항력발휘의 3요소인 적 지형, 적 부대, 적의지의 중심을 향해 지향되어야 적의 저항력을 섬멸 할 수 있다. 군사전략은 적 저항력발휘의 3요소를 무력화시킴으로서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전략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제 분야의 것을 통합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는 평시에 전략가를 양성하고 육성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략가는 어느 순간에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선진군사전략을 체험하고 배우는 기회를 가지지 않으면 동유럽의 ‘폴란드’와 같이 영토를 이리저리 쪼개어 가져가도 자신의 힘(군사력)이 없으면 ‘현이 없는 악기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III. 미·중의 군사전략

1. 미국의 군사전략(Military strategy of United States)

조지W 부시정부의 군사전략은 보호-예방-압도의 신 군사전략으로 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고(Protect), ② 분쟁과 기습공격을 예방하며(Prevent), ③ 적을 압도(Prevail) 하는 것이다¹⁰⁾

10) 한국 전략문제연구소, 『2005 동북아 전략균형』(서울 . 양서원, 2005), P98

미국의 조지 W 부시정부는 9·11 이후의 변화된 세계안보환경에 대응하여 전력배비구상으로 '1-4-2-1 군사전략'을 21세기의 신 군사 전략으로 채택했다. 여기에서 '1'은 미국 본토의 완전한 방어를 의미하며, '4'는 유럽, 중동, 서남아시아, 동아시아 등 4개 지역에서 미국의 전진배치를 통한 억제(deterrence)를, '2'는 2개 지역 전장에서의 신속한 승리를 획득하는 것이다¹¹⁾, 마지막 '1'은 1개 전장에서의 결정적 승리를 의미한다.

미국의 신 국방정책은 '01 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01 : 이하 '01 QUR'로 약칭) 및 '06 QDR'(4년 주기 국방 검토 보고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 먼저 '01 QDR'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군사전략 개념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모든 위협으로부터 본토방어를 최우선으로 하고 여러 개의 소규모 분쟁을 평정하며 둘째, Win-Win 전략을 폐지하고¹²⁾ 1개 전장에서 결정적 승리를 추구하고 셋째, 동북아 서남아 2개 핵심지역에서 적의 침략을 억제하고 넷째, 동시 2개 지역 대규모 전쟁중 1개 전쟁을 격퇴하고 1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있다.¹³⁾ 그러나 미국은 9.11테러와 이라크전쟁을 치루면서 군사전략의 변화를 피하게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미군의 재배치 전략(GPR)'이다.

11) 2개지역 전쟁에서 승리는 미군이 전진배치 되는 4개지역중 2개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전진배치 되어 있는 미군을 2개 지역에 집중 투입하여 단기간에 승리를 거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황병덕·홍용표『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 패권 변화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82~88

12) 공군전투발전단, "미국의 국방정책/전략", 『2003 Foreign Military Organization Almanac』 P. 25.

13) 2개의 중첩된 주요 분쟁에서 신속하게 적을 격퇴하되, 대통령은 그 중 하나의 분쟁에서는 정권붕괴 또는 점령을 포함한 결정적 승리를 위한 선택권을 보유하며, 이 접근방법은 전력의 초점을 2개의 특정지역 (동북아, 서남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평정하는 것에서부터 향후 기능적 능력이나 지역적 수요를 포함한 모든 요구에 부응하는 쪽으로 옮겨 놓고 있다 이것이 뒤에 후술한 능력에 기초한 전략이다

출처 국방정보본부, 2002년 미 국방연례 보고서, 2002 11. P 42

미군의 전투역량을 경량화하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며 장거리 정밀타격능력을 갖춘 정예군으로 지역(권역)위협에 대비하기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미국은 이를 위해 전력의 발전 방향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려 하고 있다. 첫째, 장비경량화로서 기동성에 중점을 둔 경 여단 시험운용을 통해 전력을 신속히 전개하고, 이를 위해 육군은 경량화 된 2개 여단 전투 팀(BCT : Prototype Brigade Combat Teams)을 창설하였고, 앞으로 2007년까지 4개 여단 전투 팀(BCTs)을 추가로 창설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이다.

둘째, 전 세계 목표지역을 타격하는 ‘범세계 타격 기동군’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불량국가 (rogue states)들의 탄도탄 위협에 대비, 장거리 폭격기를 증강하고, 무인항공기 (UAV) 개발, 무인전투기 (UCAV) 개발에 속도를 내는 등 미군전력을 해외에 전진배치 시키는 대신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으로 무기체계를 개선시키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01 QDR은 전략적 사고를 '위협중심 (Threat-based)' 군사기획에서 '능력중심 (Capabilities-based)' 군사기획으로 전환한다. 여기서 능력중심의 군사기획은 잠재적인 적대국이 미국에 대응해 구사할 수 있는 수법들을 검토하며 이러한 전략적 사고의 전환에 따라 미국 전략 입안자들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 (Strategic interest) 을 확대하기 위한 '군의 개혁'을 구상하고 있다. '개혁'의 핵심은 협존 위협뿐 아니라 잠재된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군사적 대응을 전략 입안자들에게 제공함으로 '軍의 戰略樹立'에 반영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2006년 QDR'은 보다 민첩하고 신속배치가 가능하며, 더욱 광범위해진 위협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적 합동전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응과 재조정을 추진해야하는 국방부의 고뇌가 담긴 것이다. 지속적인 개선, 부단한 재

평가, 습득한 교훈의 적용과정을 통해 'QDR 2006'에 담긴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시행될 것이다. 미국은 1990년대 이후 광범위한 군사 분야에 걸쳐 군사혁신 (RMA :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혁신은 정보화 혁명의 새로운 개념과 기술을 군사분야에 접목시켜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향상을 꾀하고 인공위성 및 우주개발과 연계하여 한 세대 이상을 앞서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특수작전에 필요한 특수 장비 및 탄약을 개발하는 등 효과적인 작전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2003년 기준 미국의 군사력은 현역 총병력 143만 3천여 명으로 이중 육군은 50만여 명(35.02%), 해군은 37만여 명(26.28%) 공군은 37만여 명(26.47%) 해병은 17만여 명(12.23%)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비역은 긴급자원과 동원자원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16만 여명의 예비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¹⁴⁾

미국의 군사력 규모(병력)를 아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 미국의 군사력 규모 (병력)

상 비				예 비 역	
공 군	육 군	해 군	해 병	긴 급	동 원
37 95 (26.47%)	50 20 (35.02%)	38 68 (26.28%)	17 54 (12.23%)	114 08 공군 22.05 육군 67.55 해군 15.28 해병 9.20	2 15 공군 : 1.76 육군 : 0.07 해군 : 0.25 해병 0.07
작전사 8 비행단 46	군사령부 3 군 단 4	합 대 5 작전사 2	기동군 3 사 단 3 기동여단 2		

* ()는 점유비율, 단위 만명, 병력(상비) 143 4, 예비역 116.2)

14)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4~2005」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공군전 투발전단 2005 외국군 구조 편람 (Foreign Military Organization Almanac) 2004 P 29

출처 :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4-~2005」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미국은 전략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을 단행해왔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조지W부시 정부의 미 국방예산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이다. 미국의 국방비는 미국이 패권국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도구이며 수단이다.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국가 안전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이들 국가들과 상호 결속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냉전기 미국의 방위비에는 우방국에게 저리차관, 무상보조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안보지원계획과 군사훈련, 무기구입 등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평화유지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었다 최근 4년 간 미국의 국방예산은 아래와 같다

<표 2> 최근5년간 국방예산

단위 억불

연도	'00	'01	'02	'03	'04
예산	2,874	2,963	3,289	3,647	3,752

출처 ·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4-2005」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미국이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그러나 국제안보 원조, 퇴역군인행정, 미 국경 수비대 (교통부), NASA에 대한 기금은 국방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9·11 테러 이후 새롭게 조직된 미사일 방어국은 MD (Missile Defense)를 구축하기 위한 자금으로 83억 달러를 요청했다. 이중 71억 달러는 10년 후 전투에 배치시키기 위한 통합된 다층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설립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로 책정되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9·11 테러이후 현재 각각 별도의 작전을 수행하는 주요기관들을 통합하기 위해 새로운 ‘국토안보국(DHS)’을 신설했다. 미 국방부 연례보고서(Annual Report)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해진 적 공격에 대비하기위해 미군자체가 변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¹⁵⁾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억지(deterrence), 봉쇄(containment)의 집단안보에 의지하던 과거의 군사전략에서 벗어나 공세적 군사개입, 선제공격전략,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불량국가 및 적대세력에 대한 전향적인 반 확산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국방예산은 시대의 변화흐름을 예측하고 세계정세를 바라보는 긴 안목에서 편성되고 요청되어진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을 제외한 세계 2위 일본으로부터 15위까지의 예산을 합해도 미국을 따라 갈 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 정도로 미국의 국방예산은 방대하고 따라서 군사적 우월감은 보장된다. 미국의 군사안보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1차 자료는 아래 표에서 언급하고 있다.

QDR은 Liberman법('96.9.23)에 의거 4년 단위로 국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문서이다, <표 3>에서 BUR은 1990년대 이후 미 국방부는 새로운 안보시대에 미국이 필요로 하는 방위력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국방계획 (BUR)을 수립하였다.¹⁶⁾ 2002년 1월에 발표된 미 국방부

15) The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2002),Chapter2 참조

16) 신국방계획(BUR)은 1993 9월 아스핀(Les Aspin)이 국방장관이 발표하면서 미국 안보 이익에 네가지 위협요소를 구분하였다 첫째, 대량 파괴무기의 확산으로부터 비롯되는 위험, 둘째, 미국에 비우호적인 강대국의 대규모 적대행위, 국가적 차원에서 일으키는 테러행위와 외국정부의 정복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 셋째 구소련, 동유럽 등지의 민주주의와 개혁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 넷째, 미국이 “강력하고, 발전적인 경제체제를 건설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력 위기이다. 출처 김

미국이 대 이라크 전에서 명분으로 삼았던 대량 살상무기(WMD)와 테러흔적을 찾기에 혈안이 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전 세계를 향해 명분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미국으로서도 자유(Free), 정의(Justice)의 전쟁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정책(Nuclear Policy)에는 지금도 3D가 존재하고 있다. 첫째, Deter, 둘째, Dissuade, 셋째, Defeat 정책이 있다. 이중에서 Deter와 Dissuade는 비확산 전략이고 Defeat는 반 확산 전략으로 상대를 칠 때 핵 공격이 아닌 재래식 공격 후에 최종적으로 핵(Nuclear)을 사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²⁰⁾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선제공격 역시 처음부터 핵을 사용하는 것 이 아니라, Defeat 단계에서 핵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평화적으 로 재래식 공격으로 적의의지를 시험해보고, 그래도 적의 공격의지를 꺾을 수 없을 때, 최후적으로 핵을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QDR 2006은 2006년2월에 발표되었으며 2005년 3월에 출간된『국방전략서』 National Defense Strategy)에 기초하고 있으며, 전략을 작전(operation)에 반영하기 위해서 미 국방부 고위 민·군 지휘부는 아래의 4대우선목표를 QDR 2006의 중점으로 규정하고 있다.²¹⁾

20) US DoD,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September 30, 2001
(<http://www.defenselink.mil/pubs/qdr2001.pdf> 검색일 2002.12.23)

21) QDR 2006에서 4대 중점영역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국방부 고위지휘부는 국방부의 전략을 군 전력구성 및 규모조정을 위한 지침으로 전환시킬 주축전력기획구조를 세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 국방정보본부, 2006,P3

〈표 4〉 QDR 2006년 4대우선목표

- | |
|--|
| 1) 테러리스트 네트워크 격퇴 |
| 2) 본토 중심방어 |
| 3) 전략적 기로에 선 국가들의 선택방안조성 |
| 4) 적대국가와 비 적대국가 행위자들의 대량살상무기획득 또는 사용방지 |

출처 ·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06, 한국, 국방정보본부

위에서 언급한 테러리스트 네트워크 등장은 지난10년 동안의 국제안보환경을 특징 지 을 수 있는 중요한 현상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국가가 아닌 초개인적 또는 초 집단적 그룹으로 국가를 상대로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 위협하고 있다. 테러리스트 네트워크는 급진적인 신정 독재체제에 이슬람교도들을 복속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협박과 선전, 선동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사용한다. 이러한 테러리스의 특징은 ① 분산된 형태의 다국적, 다인종 적이다. ② 특정종교 집단에 의해 사주를 받고 있다. ③ 초개인적 초 집단적 단위로 국가를 상대로 전투를 실시한다. ④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여 미국과 그 동맹국에 대해 집중적인 공격을 감행한다 ⑤ 세계화를 반대하고 자유의 확산을 거부한다. ⑥ 인종과 종교를 불문하고 무고한 시민을 살육한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참전의 단초가 되었던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제외하고는 미국본토가 적의 공격을 받은 것은 9.11테러가 유일한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미국은 본토방어에 있어 국방부의 전략적 목표는 『국가해양안보정책』과 『본토방어 및 대민지원 전략』에 명시되어있는 바와 같이 적의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MD)가 그 중심에 있다

미국을 미사일 방어를 위해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군비증강을 가속화 시키는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략적 기로에 선 국가들을 위해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을 더욱더 결속을 강화하고 미국에 대해 적대적인 행로를 선택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과 동북아지역, 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현실이다. 대량살상무기의 획득 또는 사용방지를 위해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훈련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PSI 가입국가를 중심으로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위해 예방차원의 조치들을 취하는 바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거래중단, 우호적인 정부가 갖고 있던 기존 무기.재료 및 기술에 대한 통제력 제고지원, 국력의 수단으로서의 대량살상무기의 신뢰박탈 등을 위해 지구적 차원에서의 동반자 관계의 구축 및 확장을 추구하고 있다. 대응차원에서는 : 예방 차원의 노력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의 위치확인, 안전 확보 및 파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거부수단을 강구 할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은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수단을 사용할 것이지만 필요할 경우 힘(군사력,Military force)을 사용할 것이다. 이때 미국은 UN에 의해 대량살상무기를 해체할 것을 요구하지만 상대가 UN을 무시할 때에는 미국은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국가와 다국적군을 편성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본토방어를 위해 전진배치지역에서 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지만 2001년 QDR에서 명시한 4개지역, 즉 유럽, 중동, 아시아 연안 및 동북아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작전

이 소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군의 전 세계 재배치전략(GPR)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QDR 2006에서 군사혁신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변환’(transformation)의 코드가 위치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NATO의 세력 확장을 통하여 유럽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및 동북아 지역 국가들도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SCO(상하이협력기구)²²⁾를 중앙아시아 및 구소련 연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재래식 군사작전수행을 통한 승리를 위해 2개의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재래식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한편 기회주의적 침략 행위에 대한 억제를 선택적으로 강화한다

적대정권을 제거하고 그들의 군사능력을 파괴하여 시민사회로의 전환 또는 회복을 위한 상황을 규정하는 2개의 군사작전 중에서 하나를 준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 안보정책은 역사적으로 큰 변화를 겪어왔다. 냉전기간 미국의 안보정책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 소련에 의한 세계적인 차원의 군사위협을 봉쇄(Containment)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왔고 이 시기는 광범위한 동맹체제(Alliance system)와 대규모 핵전력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1989년 탈냉전이후 소련의 갑작스런 해체와 동구공산권의 몰락, 독일의 통일 등은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찾아왔고, 혼

22) 1996.4.17일 「미일안보공동선언」이 발표되자 중·러 및 중앙아시아 3개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이를 견제하고, 공동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4.26일 ‘상하이5개국 회의’를 발족시켰다 2001.6월 상하이 제6차 정상회담에서 우즈베키스탄이 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상하이5개국회의’는 ‘상하이협력기구’(SCO)로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출범 초에는 경제무역 활성화방안을 추진하였으며 화물운송 및 교통협력서명과 반테러 군사훈련, 에너지정보통신 교류 협력을 통하여 지역안보협력기구로 발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국가의 특징은 에너지 자원대국으로 에너지 카르텔을 형성 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군사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란스러웠다. 구소련의 해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미국의 대 소련정책이 소련을 조기에 해체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한 요인이 되었음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그동안 전략의 중심축을 유럽에서 아시아 지역(동북아 포함)으로 옮긴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전략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긴 근본적인 이유는 1991년 미국의 주적인 소련이 해체되고 중국이 향후 미국의 잠재적 도전세력으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탈냉전시대(Post cold war era) 미국 국가안보의 위협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구소련 지역에 잔재하는 핵무기의 위협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며 둘째, 지역강대국의 대 규모 공격으로부터 약소국의 내부분쟁에 이르는 지역적 불안정에 의한 위협이며, 셋째,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 동유럽 등에서의 민주주의 및 자유시장체제로의 개혁에의 도전이며, 넷째, 강력하고 경쟁력 있고 발전적인 경제력을 유지하는데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위험 등이다.

특히 9·11테러이후,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집단 (또는 조직)이 강화되어 불특정 다수를 공격한다는 사실이다. 그 좋은 예가 오사마 빈라덴과 같은 국제적 테러집단이다 미국은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한 예로, 핵무기 위협으로부터는 조지 W부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전략핵무기를 1,700~2,200기로 각각 감축하고²³⁾ 전략무기 감축협정 (START) 을 2009년까지 유지하기로 한 것은 2001년 12월 미국의 ABM(탄도 탄 요격 미사일) 협정²⁴⁾ 탈퇴로 그동안 불안하게 유지되어온 핵무

23) '감축'이라는 것은 미사일, 잠수함, 전폭기 등에 장착돼 발사 가능상태 (취역)에 있는 핵 탄두를 떼어내는 것이다 이런 분리 작업을 '퇴역'(decommission)'이라 부른다 퇴역된 핵탄두 처리방법에는 폐기, 저장, 장착 예비 등 세 가지가 있다 미·러 두 나라는 이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24) ABM (Anti-ballistic missile) 은 상대방의 핵미사일을 떨어뜨리는 방어용 무기로, 미·소 양국이 72년 맺은 이 협정은 양국의 ABM기지를 두 곳으로만 제한, 전 국토

기에 대한 구속력을 확보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편 9.11 테러이전의 미국외교는 UN기구와 동맹관계, 국제적 협약과 조약에 기초하였으나(Liberalism), 9·11 테러이후에는 UN을 경시한 힘의 논리를 앞세운 군사력을 중심으로 이분법적 논리에 따라 ‘적(敵)’과 ‘아(我)’를 구분하였다. (현실주의, Realism). 9·11 테러이후 미국 군사정책의 변화는 2001년도 QDR, 2006년도 QDR에서도 그 변화를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의 전략 분석가들은 “유럽에는 더 이상 미국의 핵심적 이해 관계가 걸린 곳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MD를 추진하려고 할 때, 유럽 각국들이 반대하는 이유중 하나는 미국이 유럽안보를 NATO에 맡기고 유럽에 떠난다고 하는데서 오는 불안감에서 반대하고 있다. 미국이 없는 유럽은 유럽지역의 또 다른 군사 강대국의 출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1, 2차 세계대전의 과정을 음미해 보면 이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의 군사전략(Military strategy of China)

중국의 군사전략은 대전략(grand strategy)과 안보전략에 토대를 두고 있다. 중국의 군사목표는 ① 어떠한 지역의 적과도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② 영토와 국가이익을 지키며 ③ 내부안정을 유지하고 ④ 대만이 독립으로 나갈 수 없도록 억제력(deterrence power)을 갖추는 것이다.²⁵⁾ 중국은 이를 위해 군 현대화를 조속한 시일 내에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의 무기장비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있다. 중국은 1985년 이후로 2차례의 감군을 통하여

를 방어 할 수 없도록 했으며, ABM 기지를 일부에만 두면 어느 한 쪽이 먼저 핵 공격을 할 경우 상대방이 보복 핵 공격을 가하더라도 막아낼 수 없게 되고, 결국 양 쪽 모두 공멸하게 됨 따라서 선제공격을 하거나 핵무기를 많이 보유해도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

25) 한국 전략문제연구소, 『2001동북아전략균형』(서울 양서원, 2001), PP. 156~157

400만의 인민해방군(육, 해, 공군포함)을 235만으로 혁신적인 감군을 추진하여 기술군구조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감군 활동을 통하여 경직성 예산을 줄이고 나아가 전력증강투자에 사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중국군의 구조개혁'과 맞물려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군사기술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포괄적 군사협력 협정'을 체결(1995. 12)하고²⁶⁾ 1996. 12월에는 양국이 '군사기술각서'에 서명 후 대러 무기도입이 급증하였으며 러시아 푸틴 정권 집권 이후에는 '군사협력 기본합의서'를 체결(2000. 7)함으로서 첨단전자장비 장착 전투기, 함정, 미사일판매 및 기술이전 허용으로 협력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켰으며 2001년 7월에는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시 군사기술 협력 확대도 합의하였다.

중국 군 지도부는 1990년대에 와서 결프전의 교훈으로 군사력을 질적으로 향상하고 최신 무기체계로 부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1999년 코소보 사태 이후 중국은 미국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검토 할 정도로 미국에 경계는 강화하는 한편 미·일 동맹 강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사력 증강을 도모해 왔다.

중국 군 지도부는 첨단기술 조건 하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보다 경제적인 군대의 건설, 잠재역량의 통합, 고도의 효율적인 무기 시스템 개발, 신속대응군(RRF : Rapid Reaction Force)의 창설, C4I의 향상, 해안작전역량 재고, 장거리 정밀 타격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중국의 군사정책에서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경제발전에 따라 국방비의 대폭적인 증액으로 군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방으로부터 위협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1989년 이후 중국의 국방비는 매년 두 자리수

26) 1995년 12월 '포괄적 군사협력 협정체결 이전에는 1992. 10월 중국, 러시아는 '군사분야 신뢰강화'에 합의한 후 중국은 러시아의 최첨단 무기를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이상으로 증액해 왔다는 사실이다.

<표 5> 최근 10년간 중국의 경제 성장을

단위 · %

구 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경제 성장율	14.2	13.5	12.6	10.5	9.6	8.8	7.8	7.1	8.0	7.3

자료 「중국통계연감」 각 년도 재구성

출처 . 이원종 “호랑이의 진실”, 「새로운 중국과 한국」,(서울 · 나남, 2002), P 209

중국 경제의 규모는 이미 1990년대 초에 미국, 일본 다음으로 큰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보고서가 1993년도의 중국경제는 실질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때 전 세계 총생산의 6%를 차지하여 세계 3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미국,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²⁷⁾

중국의 국방비는 1988년까지 뚜렷한 증가를 보이지 않다가 1989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국방비가 급격하게 증가한 시점은 ‘6. 4 천안문 사건’이 일어난 1989년으로 이해 중국은 251억 인민폐위엔(元)을 국방비로 지출하여 1988년에 비해 15.35%가 증가하였고, 국가재정 지출이 2,823.78억 위엔(元)으로 1988년 대비 13.3%가 증가하였다. 중국의 국방비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1994년은 1993년에 비해 무려 29.34%, 1995년은 1994년에 비해 15.62%, 1996년은 1995년에 비해 13.09%, 1997년은 1996년에 비해 12.85%, 1998년은 1997년에 비해 11.98%, 1999년은 1998년에 비해 18.3%, 2000년은 1999년에 비해 12.1%, 2001년은 2000년에 비해 19.4%, 2002년은 2001년에 비해

27) 서진영,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중국위협론”, 「한국과 국제정치」 제 18권 제 2호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2002 p.6

17.6%, 2004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 통과된 국방예산은 2003년에 비해 11.6% 증가한 2,117억 위안 이었으며, 2005년도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12.6% 증가한 2,477억 위안(299억 달러)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이외에도 중국의 국방비는 2003년도 428억 달러(4조 9,530억 위엔), 2004년도 451억 달러(4조 9,030억 위엔)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⁸⁾ 이처럼 증가된 중국 국방비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군인·군무원 봉급인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국가사회의 경제발전 및 일반국민들의 개인소득이 향상되는데 맞추어 군인·군무원의 봉급수준도 동일수준으로 향상시켰다. 이는 주로 장교·군무원·하사관의 봉급수준과 병 및 후보생들의 수당기준을 향상시키고 전역간부의 퇴직금도 높였다고 보고 있다.

<표 6> 최근 중국의 국방비

단위 : 억 위엔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국방비	910	1,046	1,207	1,442	1,694	1,907	2,117
증가율	11.9	18.3	12.7	19.4	17.6	9.6	11.6

※ 증가율은 전년대비 기준임 2005년도 제10기 전인대 3차 회의에서 통과된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12.6% 증가한 2477억 위안(299억 달러)이다. 미 Land 연구소는 중국의 국방비를 이보다 많은 중간범위(mid-range)와 최대 범위(max-range)로 구분하여 2003년을 기준으로 볼 때 686억 달러(중간 범위), 756억 달러(최대 범위)로 다르게 보고 있다. 미 Land 연구소는 중국은 국방비를 다른 예산으로 은닉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출처 한국, 국방정보본부, 2000, 2002, 2005년 중국국방백서(中國的國防)

28) 출처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4-2005」,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둘째, 군인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정립을 위해 2003년 12월 제정한 「중국인민해방군 배우자의 미취업 기간 사회보험 잠정방안」은 군인들의 배우자가 미 취업한 기간동안의 기본생활 보장과 사회보험 수당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셋째, 군대편제 조정 및 개혁을 들 수 있다. 중국은 20만명 추가감군을 통해 발생하는 전역자들의 취업알선 등에 지원예산을 책정하였다. 넷째, 군대 인재건설에 투입한 국방예산은 군 인재 격려제도를 정립하고, 군사학교의 여건을 개선하며, 일반대학 위탁교육을 통해 인재를 배양하며, '군대 인재 전략 프로젝트'를 확고히 추진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섯째, 군사장비 건설예산을 충당하는데는 중국군의 무기장비의 비약적 발전에 부응하고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비건설예산을 책정하였다

〈표 7〉 1997~2003년 중국 GDP대비 국방비 비율(%)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09	1.19	1.31	1.35	1.48	1.62	1.63

출처 · 2004 중국 국방백서(中國的 國防), 국방정보본부, P 21

중국의 국방예산이 서구 선진국이 주장하는 예산과는 분명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이 국방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국방예산을 다른 정부조직 예산에 은의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분명한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나 중국은 이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중국의 국방예산은 실제보다 3 ~ 5배 정도 많다고 추정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 현대화 계획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떠한 지역의 적으로부터도 영토를 보위하고 국가이익을 수호하며, 내부적 안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대만의 법률적 독

립 또는 그 공격을 분쇄하는데 있다.

지상군 현대화가 비록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긴 하지만 병력감축과 새로운 장비확보, 그리고 신속대응군²⁹⁾을 구축하였으며 군대규모의 감축으로 인해 인민해방군의 구조는 다음의 세 요소를 중심으로 개편되어 왔다. ① 역내 긴급사태에 대응하는 첨단장비로 무장한 신속대응군, ② 중·하급 장비로 무장하여 국내안보에 초점을 맞추는 대규모 병력, ③ 기타 핵보유국에 대항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핵전력 등이다. 이런 이유로 향후 중국은 핵무기 및 미사일 관련기술 확산을 계속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³⁰⁾

<표 8> 중국의 군사력 규모(병력)

구 분	상 비			
	공 군	지 상 군	해 군	제2포병
병력(만명) 상비 : 235.5 예비 : 80.0	40.00 (16.98%)	160.00 (67.94%)	25.50 (10.83%)	10.00 (4.25%)
전 力	군구공군 : 7	대군구 : 7 성군구 : 28 집단군 : 18	함대사 : 3 (북해, 동해, 남해)	군단 : 7 여단 : 21

※ ()는 점유비율/ 예비군은 80만명(지상군)

출처 :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4~2005」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29) 중국의 신속대응군 1991년 결프전 이후 군 지도부에 의해 편제되었으며, 신속대응부대는 군구단위 주 1개 사단을 그리고 집단군단위에서 1개 대대를 선발하여 창설하였다 출처 오규열, “육군”, 『중국군사론』(서울 · 지영사, 2000), P 174

30) Kenneth W. Allen, "Key Indication of Change in Chinese Development and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hina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Conference Report, 5 November 1999.

중국은 이러한 전력에 맞는 전략을 개발하였다. 군사학교와 대학들은 보다 잘 훈련되고 기술적으로 훈련된 전력을 창출할 목적으로 장교 및 하사관들의 전문·주특기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전시에 이러한 전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전국동원체제의 구축을 위해 노력중이다. 중국은 전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 오면 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와 아울러, ② 외부의 군사적 개입 이전에, ③ 주된 무역과 해외 투자부문이 손상되지 않을 만한 기간 내에, ④ 충분한 전력을 투입하여 군사적으로 해결 할 방침이다. 만약 제3자가 중국이 관련된 지역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인민해방군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3자의 개입의도를 좌절시키기 위해 공격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군 현대화의 핵심³¹⁾은 숫자를 줄이고 질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 내용은 ① 기구의 조정과 간소화, ② 국방과학 연구와 무기장비 건설의 강화, ③ 인재의 선발과 배양, ④ 병참보급 체계의 강화, ⑤ 정규화의 수준재고, ⑥ 예비역량의 건설 등이다. 따라서 중국군의 현대화를 위해서 추진할 주요내용은

첫째, 체제상의 개혁이다. 현재의 지역별 군 구조는 현대전에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군대 편제는 각 병종과 전문업무의 분할이 개혁의 방향이다. 1998년 총장비부의 신설이 체제개혁의 대표적인 예다.

둘째, 국방비의 계속적인 증가이다. 중국은 군 현대화를 위해 '89년 이후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있고, 이것이 주변국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나 국방예산 자체는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어느 정도나 위협이 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국방 관련 물품을 정확히 미국 달러로 환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31) 한국 전략문제연구소, 『2001동북아전략균형』(서울·양서원, 2001), P. 150.

국방비 관련 항목들이 공식적인 방위비 예산에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1999년 공식 국방비는 1,076억 7천만 위안, 2000년에는 1,212억 9천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12.7%의 증가를 보였으나, 2001년에는 1,410억 4백만 위안으로 19.4%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국방 예산 증대는 군 현대화가 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이다 1986년 당시의 중국 지도자인鄧샤오핑은 “863 계획”에 착수했는데, 이는 2000년까지 중국군의 과학 기술 수준을 세계수준에 이르도록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863 프로그램이 예상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1996년에 중국은 ”슈퍼 863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그 기한을 2010년으로 연장했다.

넷째, 중국은 1997년 군 현대화를 강조하는 16자 방침을 발표했다³²⁾ 즉, ① 軍民結合(junmin jiehe : 군민의 결합), ② 平戰結合(pingzhan jiehe : 평화와 전쟁의 결합), ③ 軍品優先(junpin youxian : 군대 물품을 우선시), ④ 以民養軍(yimin yangjun . 민간부문이 군사 부문을 지원양성)이다. 이는 군 현대화와 경제발전 사이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려는 의미가 있다 중국이 군사영역과 경제영역 사이의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해 나간다면 대만의 독립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며, 중국의 경제성장은 양안의 통일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군사와 경제의 균형 달성을 여부와 상관없이 중국의 경제발전은 현대화된 무기를 구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중국의 군 현대화는 다음의 세 가지 필요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① 군사장비와 기술의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② 냉전이후 다양화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위협

32) 한국 전략문제연구소, 『2001동북아전략균형』(서울 양서원, 2001), P 151

(중국의 변경지역과 강대국들로부터의 잠재적인 위협도 포함)에 대처하기 위해서, ③ 중국의 강대국화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증가하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확장시키기 위해서이다.

군의 현대화는 중국의 강대국화를 위한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과거의 치욕을 되갚으려는 국민적 정서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더욱 강력한 중앙권력을 확립하려고 하는 민족주의적 정서도 군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개혁과 개방으로 인해 야기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과 정부만이 이를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중국의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2003년 4월 중국의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해군사상 처음으로 지난 4월 29일 장난(江南)급으로 명명된 신형 이지스 구축함을 진수했다’³³⁾고 보도했다. 특히 이 함정은 미국 이지스 전투체계의 핵심인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인 SPY-1D(V)와 거의 비슷한 성능의 자체제작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 이 레이더는 1000Km 이내의 항공기와 미사일등 대공표적을 최대 900개까지 동시에 탐지해 추적할 수 있으며 대공미사일 등으로 17개의 비행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가공할 성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이외에도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해, 공군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 중국이 러시아의 무기체계에 예속 될 수도 있는 위협부담을 무릅쓰고 이처럼 ‘러시아’제 첨단무기 및 기술도입에 적극적인 것은 중국의 잠재적 최대 위협세력인 미국을 견제하고 나아가 미국과의 무기체계 격차를 해소 해나가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2010년 이전에 48,000톤급 항모 2척을 건조할 계획(일명 ‘891 사업’)으로 최근에 大連, 上海에 305m의 대형도크를 건설하고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완전금지와 궁극적인 군축을 지지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중국

33) 동아일보, 2003. 5. 29. A13

의 최근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또한 대량살상무기를 가져야만 초강대국의 위협과 협박에 대처 할 수 있으며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핵무기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³⁴⁾

중국의 군사전략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를 보여 왔다. 그러나 안보전략의 목표는 바뀌지 않고 실행을 위한 수단만 발전되어 왔다. 중국군이 오랫동안 채택해 온 군사전략은 마오쩌뚱(毛澤東)의 '인민전쟁 전략'이었다. 국공(國共) 내전시기인 1920~1930년대 채택된 '인민 전쟁 전략'은 '적을 내륙 깊숙이 유인해 인민의 바다에서 익사케 한다'는 유적심입(誘敵深入) 전법의 방어전쟁 개념이다.

그러나 마오쩌뚱의 이 전략은 1980년대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해 근본적으로 수정됐다. 덩샤오핑은 무기와 장비의 발전에 따라 전투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믿었다. 덩샤오핑은 1985년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현대적 조건 하의 제한국부전쟁'(制限局部戰爭) 전략을 도입함으로써 인민전쟁 전략을 공식 폐기했다. 중국군 군사교리의 대전환이었다. 덩샤오핑의 전략은 장 총서기의 '첨단기술 조건하의 제한 국부전쟁 전략' 개념³⁵⁾으로 다시 바뀌었다.

34) Michael D. Swaine, "Chinese Views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hina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Conference Report, 5 November 1999.

35) 중국의 '첨단기술 조건하의 제한 국부전쟁전략' 개념은 걸프전(1990~1991년) 이후로 미국이 정밀유도무기로 적지역을 무력화 시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중국이 발전시킨 전략개념으로 중국은 이 과정에서 수만의 인민보다 한 발의 토마호크가 전장의 심리를 좌우한다고 하는 대목에서도 전략개념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들고 있다

<표 9> 중국의 군사전략 변화

시기	모택동 시기	등소평 시기	장쩌민 시기
군사사상적 지도와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전쟁 ◦ 열세의 군사장비로서 선진장비를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시기의 군대육성 ◦ 적극적 방위, 인민전쟁의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테크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 방어
군사전략 이론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전쟁 ◦ 조기공격, 대규모공격, 핵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방어, 국부전쟁 ◦ 방어전쟁과 공세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테크를 통한 국부전의 승리
군사전략 변화	인민전쟁전략	현대적 조건하의 제한 국부전쟁 (국지전) 전략	첨단기술조건하의 제한 국부전쟁전략

출처 · 한국 전략문제연구소, 「2001 동북아 전략균형」(서울 · 양서원, 2001), P 158 필자가 내용을 재정리

중국은 군사전략을 '우선, 적극방어로서 선제공격을 하지 않고 방위에 주력한다. 현대전의 High-tech조건을 충족할 국방과학과 무기장비의 발전 및 高素質 新型人才(고소질 신형인재)양성과 중국특색의 작전교리개발, 고도의 합동 및 기동전과다양한 형태의 작전수행 능력 등을 완비함으로서 국부전(局部戰)에서의 승리를 다진 후 반격역량을 보유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장쩌민 전 총서기는 정치보고에서 “첨단기술 조건 하의 적극방어 군사전력 방침을 관철하고 세계 군사변혁의 추세에 맞춰 과기강군 (科技强軍) 전략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1991년 걸프전 이후 중국군 내부에서 깊숙이 연구돼 온 ‘첨단기술 조건 하의 제한 국부전쟁’ 전략을 군사교리로 공식 채택했음을 선언한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걸프전 직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등 3대 총부와 모든 군사학원에 대해 이 전쟁의 교훈을 각각으로 연구토록 지시했다. 결론은 하이테크 전에서는 전쟁의 초기단계에 첨단과학무기로 선제공격함으로써 전쟁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무기 장비의 질을 개선하고 고도의 정보전 체계를 갖춰야 하며 신속반응부대를 창설해야 한다는 점이 과제로 제시됐다. 이 같은 내용은 1995~97년 '해방군보'를 통해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이를 토대로 장쩌민 중앙군사위주석은 97년 1월 중앙 군사위에 '첨단기술 조건 하의 제한국부전쟁'으로 군사교리를 전환하고 병력 밀집형에서 기술 집약형으로 군대를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장쩌민 중앙군사위주석은 15대 정치보고에선 "적극방어 전략을 관철하고 중국적 특색을 지닌 소수정예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미국의 대 이라크전(2003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중국은 새로운 결의를 다지게 된다. 21세기의 전쟁은 첨단정밀유도무기의 각축장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중국의 군사전략가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한편 중국이 현재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유인우주선을 발사하여 주변강대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 중국의 건재함을 내보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안보측면에서 미국의 기본적인 대 중국시각은 중국은 국제문제해결을 위해 언제든지 무력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라고 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의 대중정책은 정치·경제적으로 관여(engagement)정책을 취하는 한편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³⁶⁾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미중의 입장은 침

36) Larry M. Wortzel, "The political-Military Dimension of US Policy Toward Taiwan," HeritageLecture, No.767(October9 2002)

예하게 대립한다. 미국은 9.11테러이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보급 저지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³⁷⁾

<표 10> 중국의 개혁개방의 전략기조

구 분	내 용
개혁·개방의 전략 기조 (대외전략기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광양회(韜光養晦) (주1)○ 유소작위(有所作爲) (주2)○ 평화굴기(平和掘起) (주3)

출처 · 한국 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전략균형 2001,” 한국 양서원, 2001,
p 157 국가목표, 대외전략기조, 대외정책 목표 등은 필자가 추가정리
※ 주1 도광양회(韜光養晦) : 빛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 즉 자신의 의지
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
※ 주2 유소작위(有所作爲) · 행동이 필요한곳에 행동을 한다 즉 국제관계
에서 참여와 개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국의 뜻을 쟁기면서 국익을 확
대 시키는 공세적인 대외전략이다.
※ 주3 평화굴기(平和掘起) · 평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일어나기는 하되
다른 나라에 폐를 끼치지 않고 평화롭게 하겠다는 뜻이다. 고도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평화외교를 추진하면서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현실화
하기 위한 대외전략기조로 공동의 발전과 안보를 위해 능동적으로 국제
사회에 관여 하는 평화굴기(화평굴기 · 평화적부상) 이는 중국의 평화적
인 부상을 강구하고 중국의 부상이 폐권추구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제시된 논리이다.

이번 16대에서 새로운 군사전략 관철을 선언한 것은 걸프전 이후
또 하나의 ‘과학전’인 1999년 코소보 전쟁과 지난 2001년 9·11 태
러 이후의 비정규전 양상에 자극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37) "WMD Proliferation is a Threat We Will Not Ignore," John S Wolf,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Nonproliferation, remarks at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12th Annual International Arms Control Conference, April 19, 2002.

의 보고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1990년대 후반 들어 미국 등 선진 각국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군사혁신(RMA)을 강화하도록 촉구한 부분이다.

중국의 군사혁신(RMA)은 과학기술과 전쟁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미래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 및 국방정책, 군 구조, 무기와 장비 등 군사 분야 전반에 걸쳐 개혁을 추진함을 뜻한다.

IV. 탈냉전기 미·중 관계³⁸⁾

1. 탈냉전기의 미중관계

脫冷戰 이후 國際社會의 話頭는 앞으로의 國際體制가 단극이냐, 양극이냐, 다극이냐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단극은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을 거론하지만, 양극이 될 수 있을까? 다극이면 어느 선까지 포함하느냐를 놓고 국제정치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몇 가지 정리된 것은 소연방이 해체된 이후 兩極體制(Bipolar system)는 사라졌다. 그리고 多極體制(Multipolar system)는 다소 시기상조이다. 논거는 몇 가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多極體制 범위는 어떻게 정해진 것도 사실상 없이 학자들이 多極體制라고 했을 때는 중국, EU(유럽연합), 러시아, 일본, 기타 인도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9·11 이후 國際政治는 미국 주도의 일방주의 미국의 초 패권주의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버린 것이다. 그러면서도 美國은 내심 中國의 浮上(rising)을 경계하고 있다.

38) 손도심 「탈냉전기 중국의 군비증강이 중미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 고려대학교, 2003, PP.98~101

中國의 浮上을 거론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제공한다. 첫째, 中國의 經濟成長 및 發展에 관한 것이다. 둘째, 經濟成長에 따른 國防費增加에 대한 우려이다. 1989년 이후 中·美關係는 많은 起伏과 混亂을 겪어 왔던 것은 엄연한 근거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냉전시대 (Cold - war)의 中·美關係³⁹⁾는 經濟交流側面보다는 軍事的 대결상황이 주류가 되었으며, 항상 障碍物이 되었다. 그리고 中·美關係는 몇 가지 葛藤要所⁴⁰⁾가 常存하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脫冷戰 이후 中·美關係는 아래 <표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緊張과 葛藤, 緊張緩和, 協力關係 등을 되풀이하면서 相好 複合의 인關係로 發展해왔다.

39) 냉전시대의 中·美關係는 ① 적대관계 (1949-1968) ② 전략적 제휴관계 (1969-1980년) ③ 경제적 제휴관계 (1980-1989년)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출처 이태환, “중·관계의 변화”, P101.

40) 중·미간 갈등요소는 첫째, 대만문제. 둘째, TMD, MD문제 세째, 인권문제 등으로 개념 지어 볼 수 있다.
출처 . 이태환, 미·중의 갈등과 협력,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세종 연구소, 2002, pp.120~124.

<표 11> 脫冷戰後 中·美 關係

중·미관계	년 도	주 요 사 건
냉 각 기	1989 ~ 1994년	1989 . 천안문 사건 1993 : 대중국 경제제재 조치
갈등 · 대립기	1994 ~ 1996년	1995 : 대만 이등휘 총통 미국 방문 1996 . 대만 협협 긴장 1996 . 미·일 신 안보선언
화해 · 협력기	1997 ~ 1998년	1997 : 미·일 가이드라인 1997-1998 . 양국정상회담
긴장갈등기	1999 ~ 2000년	1999 . 유고주재 중국대사관 오폭 1999 : 코소보 사태 1999 . 미·중 정상회담
갈등 · 협력기	2001 ~ 현재	2001 . 중국WTO가입/ 미국의 MD천 명 9·11테러 발생 2003 .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2006 . 북핵의 UN안보리회부 대북결의안 찬성(중국 러시아)

中·美 關係는 1997년 양국정상회담에 이어 98년 6월 클린턴의 방중으로 새로운 발전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였다.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하였다. 중국의 견지에서 볼 때 전략적 동반자 관계란 중국과 미국이 일치되는 점은 추구하고, 의견이 다른 점은 잠시 보류하며(求同存異)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것을 의미한다.⁴¹⁾ 내용에 있어 중·미 양국은 전략적으로 중동, 서남아, 한반도에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공통된 이해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협력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41) 이태환, “90년 이후 미·중관계의 변화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세종연 구소, 2002, p111

양국이 상호간에 전략 핵무기를 조준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적대관계를 청산하였다는 점이다.⁴²⁾ 그리고 1998년 정상회담에서는 3개 성명이 재확인되었다.⁴³⁾ 가장 중요한 문제인 대만문제에 있어 미국이 三不⁴⁴⁾정책을 선언하여 미·중의 협력은 몇 년간 지속되었다.

클린턴의 방중 결과 아시아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지위와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방문기간이나⁴⁵⁾ 클린턴의 여러 동정에서 보여 지듯이 이제는 미국이 중국을 국제적인 무대에서 중국을 주요 강대국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의 패권추구 및 일방주의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 할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다.⁴⁶⁾

그러나 이러한 관계 개선의一面에 중국의 무역 불공정 관행과 그로 인한 미국의 무역적자, 중국의 민주화 운동 억압, 티벳 문제 등은 중국에 대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TMD 문제로 미·중 관계는 더욱 어려움을 맞게 된 가운데 중국의 로비사건, 핵기술 절취사건 의혹 등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양국 관계는, 99년에 들어와 코소보 사태와 5월 8일 유고 주재 중국대사관 오폭 사건 이후

42) 이태환, “90년 이후 미·중관계의 변화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세종연구소, 2002, p 111.

43) 양국 정상은 3개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① 생물학 무기 협약 의정서 ② 대인지뢰 ③ 남아시아에 대한 공동성명이다

44) 미국의 삼불정책은 ①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② 미국은 두 개의 중국, 혹은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지지하지 않는다 ③ 대만의 UN가입을 지지하지 않는다

45) 일본 방문시에서도 3일을 초과한 적이 없는 반면 98년의 訪中 기간은 9일이나 되었다

46) David Shambaugh, "Sino-American Strategy Relations, From Partners to Competitors," Survival, 42,1(Spring 2000)

극도로 악화되었다. 99년 4월초 주용기(朱鎔基) 총리의 미국 방문 후 발생한 주 유고대사관 폭격사건에 대해 중국은 이 사건이 중국을 제압하고자 하는 미국의 계산된 행동으로 보고 반발하여 양국 간 방문 및 회담 등이 모두 무기한 연기되는 등 양국 관계는 급속히 경색되었다. 미 의회는 콕스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미 핵기술 절취 의혹을 폭로하면서 중국을 압박했고 대만 이등휘(李登輝) 총통의 양국론 발언도 미·중 관계의 틈새를 더욱 벌렸다. 그러나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 앞서 99년 9월 11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수개월간 열어붙었던 양국 관계는 다시 전환점을 맞았다 빌 클린턴 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 국가 주석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1일 단독 정상회담을 가지고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대한 논의를 했다.⁴⁷⁾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간에 WTO 문제를 논의한 이후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다 또한 미중 양국은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 때문에 미중관계는 잠재적 충돌 가능성의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가능성의 상호협력과 화해의 의도를 암도하지 못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⁴⁷⁾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보는 관점이 클린턴 정부시절에는 '건설적 포용정책'인 이른바 '관여와 확대'(engagement and enlargement) 전략에 입각하여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조지 W 부시정부는 중국에 대해 미래 미국의 잠재적 적대세력으로 보는데 그 차이가 있음을 부인 할 수가 없다. 잠재적인 이익이 상충하기 때문에 전략적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양극체제(bipolarity)의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으로 인해 아시아는 상당기간 평화와 안정이 유지된다는 논리를 편다.⁴⁸⁾ 그러나 현재 동북아에는 북한핵문제와 영유권분쟁, 역사왜곡,

47) Ming Zhang and Round N. Montaperto, *A Third of Another Kind*, pp 14~18

48) Robert S Ross, "The Geography of the Peace East As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Security*, 23,4(Spring 1999)

군비 증강 등 갈등의 골이 심각한 지경에 놓여있다.

<표 12> 중국과 미국의 갈등·협력요인

구 분	중 국	미 국
갈등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패권방지 및 경제성장에 따른 군사력 증강을 바탕으로 주도권 장악전역 미사일 방위체계(TMD)대만문제는 국내문제인권문제 등 내정간섭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아시아지역에서 패권국가 출현방지, 이를 위해 급부상하는 중국 경제 필요대만문제는 동아시아 안보문제와 연관인권문제는 인류보편의 문제
협력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량파괴살상무기 확산의 방지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미국의 협력 필요중국제품의 수출시장과 對中 투자국으로서 미국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아태지역의 안보와 세계평화질서에 중국의 협조가 중요일본의 군사대국화 견제와 한반도 문제해결에 중국의 협조 필요교역상대, 투자대상지 시장의 중요성

출처 이태환 “미·중 관계와 한반도”, 「미·중 관계 변화와 한반도」, 세종연구소, 2002, p.120.

V. 미·중의 군사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탈냉전이후 중국은 개혁, 개방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9·11 이후 중국은 강대국들에 대해 전방위 우호협력, 다자 안보체제에의 적극 참여, 첨단 군사력 증강, 군사혁신 (RMA)의 과감한 실행등을 내용으로 실리추구 전략을 취하고 있다. 9·11이전에도 중국은 미국 주도의 안보동맹(Security alliance)에 대항하여 전방위적으로 주요 국가들과 쌍무적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자

안보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제도적 기구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왔다. 한편 미국은 냉전 (Cold War) 후 클린턴 정부의 Win-Win 전략과 조지 W 부시의 선제공격 전략 (pre-emptive strike) 분해해보면 미·중 관계와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힘(power)을 앞세운 조지 W 부시 미국과 중국은 대테러전에는 상호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에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견해를 같이 하고 있으나 동북아 및 한반도에는 미국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그것은 미일동맹이 결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 미국의 군사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함의

첫째는 북한과의 관계 정립이다. 최근 북한의 변화는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만큼 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것의 방증으로 보인다. 이는 역으로 북한이 이제는 실질적인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우리의 입장에서는 최근 가속도가 불기 시작한 남북철도 연결 사업 등 협력 현안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의주 경제특구 등 북한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개방 움직임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반으로 조성해야 한다⁴⁹⁾

그러나 동시에 북핵 위기에 관해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레버리지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태가 걸 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지는 것을 막고 원인과 대응책을 냉정히 따져서 차분히

49) 이상현, “미국의 안보정책”, 송대성 편저, 『주변국의 안보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 (성남 세종연구소, 2003), P 67

대응하는 것이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한국을 인질로 삼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북핵 사태의 본질은 북한이 1992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위배했다는 사실이며, 우리로서는 북한에게 이 사태로 초래될 남북간 신뢰상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북한에 대해 북한정권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남한은 북한을 도울 수밖에 없으리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모종의 조치는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각종 경협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북한의 태도를 보아서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등 북한이 잘못하면 한국도 북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는 논리 하에 언제까지나 북한이 남북관계의 고삐를 쥐고 흔들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둘째는 한·미관계에 대한 우리의 입장정리이다. 이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태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좀더 호혜적인 동반자관계 전설과도 연관된다. 한·미동맹과 공조는 우리의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동북아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한 미국의 안보공헌이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점증하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자세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특히 미국의 대북 강경 노선 때문에 남북관계의 진전이 저해 받고 있다는 한국사회 일각의 시각과 그로 인한 반미감정에 대해 국가 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⁵⁰⁾ 한편으로는 대북 정책의 방

50)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퓨(Pew) 리서치 센터가 2002년에 전세계 44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에 대한 세계여론이 최근 1~2년 사이에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외교정책이 다른 나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높았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 전쟁에 대해서도 반대의 비율이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시아에

불어 중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 협력하면서도 전략적으로 경쟁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중·일 양국사이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국의 중간 브릿지 역할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일본의 안보 역할 증대에 대해 공개적 비난을 자제하는 것은 중국도 안보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양국의 군비(軍備)가 강화되면서 상호간에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영향력 경쟁 구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은 북·일 수교를 지지하면서도 한반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급격히 증대되는 것을 거리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한반도에서 4자회담보다는 6자회담을 주장하는 등 한반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원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에 일본이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일 경우 중국과 마찰의 소지가 없지도 않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대만의 군비경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적정 군비를 유지하도록 하는 지역 내 안보기제가 없기 때문에 긴장이 없는 경우에도 군사력 균형을 위한 안보전략에 따라 군비를 증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 내 군사력 균형을 위해 일본과 한국군의 군비도 지속적으로 증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역 내 군비통제(Arms control)를 위한 대화 채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역 내 안보 대화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며 한국도 이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에 대비해야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에너지의 블랙홀(black hall)이다. 에너지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에너지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중국과 일본의 에너지 전쟁 사이에서 한국은 자칫 에너지 위기직면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한중군사교류를 추진해 되 미중군사관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위기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 계기를 가짐으로써 미국의 관심을 한국 쪽으로 돌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중대한 위치에 서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최근에 해군력 증강 및 현대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자원의 안전 및 해상수송로 확보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의 모든 도서, 특히 남사군도 등에 대한 영유권주장은 이 지역 내 천연자원 확보와 전략적 가치(strategic value)로 인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전략지대인 것이다

군사전략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목표(National objectives)와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s)을 실현하는데 있다. 최근(2006.8)에 한반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동북아공정 프로젝트” 역시 중국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책사업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구성원이 공산당 정치국원 및 중앙위원들로 사회과학원 원장 및 부원장을 겸한데서 알 수 있으며 예산지원도 중앙정부와 동북 3성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단지 학술연구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2004년 이문제가 이슈화 되었을 때 한중간에 양해사항이 체결되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중국은 이를 위반하고 연구를 계속해 왔다. 이외에도 중국이 백두산을 포함한 우리의 역사 발해, 고구려, 고조선, 삼국의 역사까지도 왜곡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집요하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역사왜곡에 관여하는 이유는 ① 북한붕괴에 대비하여 영토확장과 연고권 개입의도를 드러내 보이며 ② 중국의 개입을 정당화 하려는 작업의 일환일 수 있으며 ③ 남북한 통일에 대비 만주일부지역과 간도(동간도·서간도) 지역의 영유권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쟁취하기 위한 사전포석을 두는 것이며 ④ 중국은 북한을 중국의 변방에 위치한 지방정부로

역사를 왜곡하여 북한지역에 중국정부의 권한을 행사 하겠다는 것이며 ⑤ 백두산을 자국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해 갖은 수단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⁵⁶⁾. 현재 백두산의 경우 1962년에 체결한 ‘조중변계 조약’에 따라 백두산 천지의 45%는 중국령이 되버린지 오래다

중국 정부의 싱크 탱크들은 대만과 북한에 대해 전략적 워게임(Strategy war-game)을 수없이 반복하여 최적의 상태를 찾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여 한반도를 가상하여 군구단위로 훈련하고 있음이 최근에 밝혀진바 있다

우리정부는 지금 현 시점에서 분명한 의사나 메시지를 나타내지 않으면 훗날 곤경에 처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이런 문제역시 우리가 중국을 상대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동맹국 미국의 공감을 불러와야 국제 이슈화 하는데 유리하게 전개시키기에 유리해질 것이다 동맹(Alliance)이란 반듯이 전시와 같은 사태에만 적용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왜 중국이 하필이면 이시기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걸까?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이 판단하건데 북한의 정권이 불안정 하는데 기인하는 것이며, 둘째, 탈북자를 포함한 남북한간에 첨예한 문제가 중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틈을 중국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한미간의 갈등-균열(conflict-cleavage) 조짐이 중국이 활용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범정부차원과 당파를 초월하여 초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닥쳐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 중, 일, 러 등 강대국 관계 변화는 한반도에 직·간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

56) 백두산(중국명 ‘창바이산’)주위에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사이에 긴밀한 협약에 의거 공항을 건설하고 지하수를 개발하며, 동북지역의 관광벨트의 전진기지로 삼고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있다

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강대국들이 어느 정도 범위의 안보문제에 있어 협조체제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협조체제가 구축되기까지에는 강대국들 간의 상호 신뢰구축(Confidence Building Measures)이 선결조건이 될 것이므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대 테러전 국제연대로 미·중이 협력하고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있으나 아직 미·중·일 삼각관계(trilateral relationship)에서는 상호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특히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 일본의 해외 파병과 더불어 안보 역할의 확대 등으로 인한 상호 의혹이 증대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안보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미·중간에 군사교류와 대화가 재개되어 2002년에 미·일뿐 아니라 유럽 강대국들을 비롯해 많은 주변국가 들과도 안보 대화를 급속히 확대했다.

미·일·중·러의 역학관계가 유동적인 상황으로 변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한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구도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강대국(great power)에 대해서는 당분간 협조 속에 실리추구로 나아가면서 다자 안보기구나 국제무대에서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는 동안 강대국들이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아울러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여야 한다.

VI. 결언

역사는 되풀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되풀이 한다.

-볼테르

한국의 대외정책은 절반은 북한이고 나머지 반은 미국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은 한국의 대외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북한을 뒤에서 지지하는 중국 역시 우리의 외교정책에서 군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클린턴 정부의 win-win 전략과 현 조지W부시 정부의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 전략은 미국의 국가전략과 그 맥을 같이하면서 국익을 위해서 지켜가고 있다.

미국의 국가전략이 미국의 국익 (National interest)에 기초한 것이라면 중국의 국가전략은 오랫동안 중국인민의 군사사상과 국제환경에 따라 오랜 주기를 유지하면서 변화되어왔다. 특히 미국의 군사전략은 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또는 미 국방 연례 보고서 (Annual Report)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지금 미군의 재배치 전략과 맞물려 있다. 미군의 재배치 전략은 크게 영구군사 중추기지 (HUB)⁵⁷⁾, 전진작전기지(FOB)⁵⁸⁾, 전진작전지역(FOL)⁵⁹⁾으로 세계 전 지역을 구분하여 배치계획을 그려가고 있다. 향후 한국은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으로 철수 후에는 평택으

57) 영구군사 중추기지(HUB)는 미군 재배치 전략중 하나이며, 일명 전략기지(Strategy Base) 개념으로 미군이 상시 주둔하면서 지역전략의 중추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58) 전진작전기지(Forward Operating Base)는 작전수행에 필요한 소규모 군수지원 병력과 기지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미군이 상주하는 기지 개념이다. 주한미군이 HUB 기지 개념에서 FOB 기지 개념으로 바뀔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중앙일보, 2003 11 27 6면)

59) 전진 작전지역 (Forward Operating Location)는 미군이 상주하는 1~2년에 한번씩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지역개념이다. (기지사용료 지급)

로 이동하게 된다. 또 다른 재배치계획으로 해외주둔의 규모는 아래 4단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 ① 전력투사기지(PPH : Power Projection Hub): 대규모 병력 · 장비를 전개할 수 있는 중추기지
- ② 주요작전기지(MOB : Main Operation Base): 대규모 병력이 장기적으로 주둔 하는 상설기지로 2~3년 주둔하는 기지
- ③ 전진작전지점(FOS:Forward Operating Site): 유사시 증원을 천제로 한 기지
- ④ 안보협력대상지역(CSL · Cooperative Security Location): 소규모 연락반만 상주

한반도 안보는 미국의 군사전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이외에도 현 정전체제와 한·미 연합 지휘체제를 들 수 있다. 북한은 현 정전체제를 바로 평화체제로 전환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또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중국의 군사전략은 지금 당장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금의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생필품을 포함한 기초생활물품을 들여 오면서 북한지역의 지하자원과 광물을 물물교환형식으로 맞교환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북한에 갑작스러운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이 오면 중국이 남북한끼리 하라고 가만히 있겠는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동맹관계(U.S-ROK Alliance relations)를 더욱더 강화하고 미국을 설득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자치 낭패를 불러 올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 했을 때는 이미 떠난 기차를 되돌리려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중국은 과거 100년전의 중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9·11 이후 중국은 강대국들에 대해 전방위 우호협력, 다자안보체제에의 적극 참여, 첨단 군사력 증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리추구 전략을 취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안보 역할에 대응하여 대미관계 개선 및 대일 관계에 유연성(flexibility)을 보이는 한편 러시아와 협력을 지속하면서 다자안보 및 집단안보체제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지지 및 필요성을 표명하고 있다. 9·11 이전에도 중국은 미국 주도의 안보동맹에 대항하여 전방위적으로 주요 국가들과 쌍무적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자안보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제도적 기구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와 체결한 우호조약과 상하이협력기구의 창설이다.

그러나 9·11 이후 미·러가 급속히 접근하게 되면서 전략환경(Strategy circumstances)이 변화했기 때문에 중·러협력과 상하이협력기구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려던 균형전략(Balance strategy)에서 미국과 협력을 하면서 다자안보협력을 더욱 강조하는 방식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에 편승하는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 과거 미·일 동맹에 대응하여 중·러협력을 이용하는(using) 견제전략(Check strategy)을 전개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중·러 협력을 하는 동시에 미국 및 일본과 협력을 하면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통해 실리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라크전에 있어서도 공식적으로 전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실제로는 미국과 협상을 하는 실리주의 전략을 구사하였다.

다른 한편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점도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해 온 신안보 개념에 입각한 포괄적 안보와 전방위적 우호협력, 다자안보체제에 대한 적극지지 혹은 안보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지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안보전략을

'방어적 현실주의'를 중심으로 신 자유주의적인(Neo-Liberal) 요소가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어적인 현실주의(Realism)는 중국이 국제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추구 한다기보다는 국제체제의 중요한 성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면서 역할 추구해 나간다는 데에서 방어적이라는 의미이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최고 책임자가 중동, 중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를 순방하여 에너지 외교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자원 확보 없이는 중국의 경제발전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를 일초다강⁶⁰⁾ (一超多强, 일국의 초강대국과 몇 개의 강대국)으로 특징짓고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주장하는 입장도 이러한 맥락이다. 나아가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에 대한 전략에 있어서도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면서도 포괄적 안보의 개념을 기초로 협력안보, 공동안보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전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자주 국방건설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이유를 미국과 중국이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외교란 외교수사를 애매모호(ambiguous)하게 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전략을 상대가 알아버린다면 우리의 전략카드는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군사전략도 국가목표(National objectives)를 달성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일본이 조용히 군사력을 증강 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상대로 하여금 오판하도록 유도하여 자국의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유

60) 세계적인 역사학자 폴 캐네디교수는 2031년의 세계체제를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러시아가 병립하는 5극체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2006.15

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intention)로 풀이 할 수가 있다. 자주 란 범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교적 수사는 상대로 하여금 혼란스럽다는 인식이 들었다면 적절한 외교수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국의 안보 (Security)가 중요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우리는 미국의 세계화전략(Globalization strategy)과 중국의 선 경제 후 국방 (先經濟後國防)논리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I. 국내문헌

- 국방정보본부, 2001-2006 『4년주기 국방검토보고서』, QDR 2001: 2006』.
- 국방정보본부, 2002, 『2002년 미 국방연례 보고서』
- 국방정보본부, 2003 『2002년 중국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 공군전투발전단, 2005, 『2003 외국군 구조편람』.
- 김성철, 2003, 『미중일 관계와 동북아질서』, 세종정책총서 2003-2, 성남: 세종연구소.
- 김종현 · 김호준 · 공의식 편저. 1998, 『미 · 중 · 일 대외정책』 부산: 부산외대 출판부.
- 박종원, 김종운. 2001, 『중국전략론』, 서울: 필복원.
- 서진영. 1999, 『현대 중국정치론·변화와 개혁의 중국정치』, 서울: 나남,
- 송대성 편저 2003, 『주변국 안보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 성남: 세종연구소.
- 이원종. 2002, 『새로운 중국과 한국』, 서울: 나남.
- 이영민 1991, 『군사전략』, 서울: 송산출판사.

- 이태환. 2002, “90년 이후 미·중관계의 변화『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세종연구소.
- 장항석.2002,『미국 패권의 이해』, 서울 평민사.
- 차영구·황병무 편저.2002,『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서울: 오름.
- 하대덕. 1998,『군사전략학』,서울: 을지서적.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1『동북아 전략균형 2001』, 서울. 양서원
- 황병덕·홍용표,2004,『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연구』, 서울 : 통일연구원.
- 소토카히데토시·혼다마사루·미우라도시아키자,진창수·김철수역,
2006『미일동맹: 안보와 밀약의 역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 동아일보 / 중앙일보 / 1한국일보 /.한겨례신문

II. 외국문헌

-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4-2005」,Oxford University Press,2004.
- Axelrod, Robert. 1984.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olton, John. 2003. Testimony to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June
4. http://www.house.gov/international_relations/108/bolt0604.html
(검색일 2003년 6월 9일)
- Bolton, John. 2004. The Bush Administration's Nonproliferation
Policy: Successes and Future Challenges, Testimony to
the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March 30).
- Brooke, James. 2003. "North Korea suspends its passenger ferry
link with Japan," The New York Times(June 9).
- Bush, George W. "President Sworn-In Address to Second

- Term."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5/01/20050120-1.html>(검색일 : 2005년 3월 27일).
- Buzan, Barry, Ole Wæver, Jaap de Wilde(1998).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Era Lynne Rienner Publishers.
- Buzan, Barry, Gowher Rizvi, et al. (1986). South Asian Insecurity and the Great Powers. London Macmillan.
- Buzan, Barry, Morten Kelstrup, Pierre Lemaître, Elzbieta Tromer, and Ole Wæver (1990). The European Security Order Recast: Scenarios for the Post-Cold War Era. London: Pinter Publishers.
- Buzan, Barry, and Gerald Segal (1992). "Introduction. Defining Reform as Openness" in Gerald Segal(ed.), Openness and Foreign Policy Reform in Communist States. London: Routledge, pp.1~17.
- Buzan, Barry, Charles Jones, and Richard Little(1993) The Logic of Anarchy' Neorealism to Structural Re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uzan, Barry, and Richard Little(1994). "The Idea of 'International System'. Theory Meets Histor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15.3, pp 231~255
- Buzan, Barry, and Gerald Segal(1997) Anticipating the Future. London: Simon and Schuster.
- Buzan, Barry, and Eric Herring(forthcoming 1998) Pandora's Box. Military Security, Technology, and World Politics. Boulder. Lynne Rienner.
- Campbell, David(1993). Writing Security United States Foreign

- Polic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03. Verifying
North Korean Nuclear Disarmament: A Technical
Analysis(June).
- Carr, E. H. (1939).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and Basingstoke Macmillian.
- Cha, Victor D. "The Rationale for "Enhanced" Engagement of
North Korea: After the Perry Policy Review" Asian
Survey 39.6(November/December 1999), pp 845~66.
- Bolton, John. 2003. Testimony to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June 4.
<http://www.house.gov/international-relations/108/bolt0604.html>
(검색일 · 2003년 6월 9일).
- Bolton, John 2004. The Bush Administration's Nonproliferation
Policy. Successes and Future Challenges, Testimony to
the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March 30).

The Korean Peninsula security and Military Strategy of USA and China

Son, Do-Sim

The world has been rapidly restructured in an agenda of national security from center of military strength to that of economic strength since the post cold-war era .

China military leadership-division carried out RMA through learning of a lesson from Gulf war in 1990~1991 and Iraq war in 2003, thus the leadership-division made an attempt to convert the military system to a technical intensive system.

The principle based on RMA of China military is [National defense strategy] drafted by the central military committee 1985 and [Four modernization general principles] 1978.

China has introduced Russian high-technological arms and equipment in order to build up the military arms greatly thanks to an economical development, and they take pragmatism line as chinese socialism with their strategy to make secure a position as military powers such as they successfully launched a manned spacecraft and are building an air-craft carrie and so on.

USA has a theory of dichotomy whether a country is a cooperator for USA, or not. and also enemy or friend since 9.11 terror, thus USA is different from their direction of police.

This is because USA stands a position as the superpower of the

supremacy hegemony of the world.

We must be carefully aware that USA considers as important area for Middle east, West south Asia, Central Asia and North west Asia to meet the demands of 21century.

Accordingly, the focus of USA's military strategy will be probably concentrated at the above mentioned four areas.

On the other hand, USA enjoys such a superpower position due to collapse of USSR which was the past main enemy since the post cold war era.

We could give an conclusive example as fact that USA has recurred to unilateralism But USA carry on the military operations to the terror groups at global around by converting thje military strike strategy to pre-emptive strike strategy since 9.11 terror, 2001.

USA seeks for transformation to the mobile military forces with light-quantity oriented in order to carry on such the military operations and makes progress GPR, And the USA forces in Korea makes progress a military renovation as part of such a military strategy.

On the other hand, USA promotes the measures of choose for the countries standing at the crossroads of strategy and carries forward a main scheme of provision for four priority aims that the leaders of a hostile country and mis-country shall be prohibited from use and obtain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ccordingly, this treatise found out a significant meaning to have an effect on the national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 National strategy, Military strategy, rivalry, cooperation